

23. 20C 전반기의 동아시아 ③

메이지 헌법체제의 동요

현대 동아시아의 형성(2020s)
독습용 보조교재 & 과제

0. 시대연표(21 · 22회차와 동일)

	한국	한국	일본
1900	청 (淸)	대한제국	메이지 (明治) 시대
1910			다이쇼 (大正) 시대
1920	민국 (民國) 시대	일제 강점기	쇼와 (昭和) 시대
1930			
1940			

*일본 안은 발생일(月)

1900: 의화단 사건, 1901: 관서선정(1), 1902: 영일통상(1)

1904: 러일전쟁 발발(2)

1905: 가쓰라-타프트 밀약(7), 중국통방의 성립과 삼민주의 제창(8), 포츠머스 조약(9), 히비야폭동(9), 을사조약(11), 청조의 입헌 제 조사단 파견(12), 1906: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설립(11)

1908: 청조의 「중정헌법대강」 발표(8), 선통제 즉위와 서태후 사망(11)

1910: 대역사건(5월), 한일합병(8), 1911: 무창불기→신해혁명 시작(10), 중화민국 임정 수립과 쑨문의 임시중립 취임(12), 1912: 선통제 퇴위와 청조멸망(2), 원세개 제2차 임시중립 취임(3), 국민당 창당(8), 다이쇼정변과 제1차 호헌운동(12)

1913: 제2혁명 실패와 쑨문의 일본 망명(7-8), 1914: 제1차 세계대전 발발(7)

1915: 일본의 대종21개조 요구(1), 「신정년」 창간(9)과 신문화운동, 원세개의 제제운동, 1916: 원세개 병사와 군벌시대 개막(6)

1918: 팔소동(7), 시베리아 출병(8), 제1차 세계대전 종결(11), 1919: 파리 강화회의의 시작(1), 3·1운동(3), 5.4운동(5), 중화혁명당→중국국민당(10)

1920: 안·진전쟁(7), 1921: 중국공산당 결성(7), 워싱턴회의(11), 1922: 제1차 직·봉전쟁(4), 일본 공산당 결성(7)

1923: 쑨문-요세선언(1), 관동대지진(9), 1924: 국민당 개조와 제1차 국공합작(1), 제2차 호헌운동(1), 황포군관학교 설립(6), 제2차 직·봉전쟁(9)

1925: 쑨문 사망(3), 5·30사건(5), 보통선거법·치안유지법 제정(5), 왕정위-장개석 연합체제와 국민혁명군 편성(8), 1926: 중산항 사건과 왕-장 연합체제 붕괴(3), 북벌 시작(7), 1927: 4·12반공정변(4) 국공합작 결렬(7), 남창폭동(8)

1928: 장장립 독살(6), 북벌 완료와 군벌시대 종식(12), 1929: 세계 대공황 발생(10)

1930: 현면해군군축회의(1), 중원대전(5-10), 국민당의 공산당포위공작(12 - 1934), 1931: 장개석의 루쑤취임(5), 만주사변(9), 공산당 임시중앙정부 성립(11), 1932: 상해사변(1), 열강단 사건(2), 만주국 건국(3), 5·15사건(5)

1933: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(2), 당고 정전협정(5), 1934: 「장정」과 보좌들의 공산당 장악(10 - 1935)

1935: 국제당징운동(8), 12·9항일운동(12), 1936: 2·26사건(2), 서안사건(12), 1937: 중일전쟁 발발(7), 제2차 국공합작(9), 국민정부의 중경 천도(11), 일본군의 남경점령과 대학살(12)

1938: 일본의 중국 국민정부 루시선언(1),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공포(4), 동아신질서 성명(11)

1940: 왕정위 남경괴뢰정부 수립(3), 삼국통방(3), 1941: 환남사변(1), 미국내 일본자산몰수와 석유수출금지(7), 대동아공영권 구상(7), 트로츠키 내각성립(10), 태평양전쟁 발발(12), 1942: 국민정부의 국가총동원법 공포(3), 미드웨이 해전(6)

1943: 과달카날 철수(12), 1944: 마리아나 해전(6), 미국의 사이판·오키나와 점령(7)

1945: 연합군의 오키나와 점령(7), 원폭투하(8), 소련합전(8), 일본패망(8)

1. 메이지 후기(1900~1912): 러일전쟁과 대중의 정치적 대두

• 러일전쟁(1904~5)

: 러일전쟁이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들

cf. 일본사회의 호전적 여론과 언론

→1890년대 이후 근대적 의무교육을 받은 세대가 사회 진출

→신문 구독자 수 급증, 언론의 영향력 증가

→의회개설과 제한선거 시작...국민의 정치적 관심 증대

→보통선거 실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(=여론) 고조

→전통적 엘리트층이 국민여론(호전적 경우에도)을 무시하기 어려워짐

→새로운 엘리트층인 정당세력은 호전적 여론을 선동 or 영합

: 러일전쟁에서의 막대한 사상자수와 불만족스러운 결과(보상X)

→최초의 도시 민중폭동(「히비야 폭동」) 발생과 전통적 엘리트층의 충격

: 일본의 열강 진입과 서구열강들의 본격적인 견제

• 「게이엔」(桂園) 시대의 개막(1901~12)

: 전통적 非선출권력(유신주도자·후계자)과 새롭게 대두한 선출권력(하원 다수당)이 교대로 집권

1. 메이지 후기(1900~1912): 러일전쟁과 대중의 정치적 대두

- 「게이엔」(桂園) 시대의 개막 (계속)

- 불과 10년만에 정당세력이 국정을 양분할 정도로 성장

- : 정당정치와 대중의 정치적 대두

- 대중의 정치적 성향을 親정부적으로 이끌 필요성이 제기됨

- 정부가 「유교적 가족주의 국가관」을 강조

- 청년회 · 재향군인회 · 농협 등의 조직을 신설, 지방여론 유도에 주력

2. 다이쇼 시대(1912~1926): 선출권력과 非선출권력 사이의 대립과 타협

• 불안한 새 시대의 개막

: 「大帝」 메이지 천황의 사망과 신해혁명이란 국내외적 동요

→러일전쟁 이래 군비확장을 요구해온 일본군부가 이를 계기로 정부 압박

→정부의 거부(경제불황과 재정난)

→군부의 육군대신 후보 추천거부→내각 붕괴

→대규모 군중폭동을 수반하는 非선출권력 타도운동(「헌정옹호운동」) 발생

• 제1차 세계대전(1914~18)의 영향

: 전술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불황에서 일본을 구원

→무역 경쟁국들의 일시적 부재, 일본 산업계의 대호황

→열강이 중국에서 일시 퇴장, 「대중 21개조 요구」

: but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

→임금 상승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과 빈부격차 확대

→중국 내셔널리즘의 공격대상이 일본에 집중

→세계적 군주제의 붕괴와 사회주의 사상의 유행 (일본 엘리트층의 악몽)

2. 다이쇼 시대(1912~1926): 선출권력과 非선출권력 사이의 대립과 타협

• 정당정치의 절정기와 「협조외교」(1920년대)

: 군주제의 세계적 위기→천황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 지지 필요

: 「총력전」(total war)이란 새로운 형태의 전쟁

→국민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치적 배려가 필요

: 시대 변화의 상징인 하라 다카시(原敬) 내각의 등장(1918)

→메이지유신 주도자들의 출신지가 아닌 옛 막부 직할령 출신, 평민 신분

→높은 대중적 인기에 원로·행정부 고위층들이 마지못해 동의

cf. 메이지 시대의 총리선출 방식

→육해군 장관을 제외한 모든 장관직에 정당 출신자 임명(≡의원내각제)

→경기호황을 이용한 대규모 예산편성과 「이익유도형」 선거전략

cf. 전후 자민당 정치의 모델

→세계대전 종식에 따른 불황 도래, 재벌과의 유착 문제로 인기하락, 암살

→but 그가 터를 닦은 정당정치는 이후 일본의 1920년대를 풍미함

: 「국제연맹」의 신설과 「워싱턴 회의」의 개최(1922)

→일본은 외교적 고립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 참여, 대미관계 개선시도

→군축에 동의, 21개조 요구 일부철회 등 중국 불간섭 정책

2. 다이쇼 시대(1912~1926): 선출권력과 非선출권력 사이의 대립과 타협

- 정당정치의 절정기와 「협조외교」(계속)

- 이런 협조외교는 「만주사변」 직전까지 지속

- 정당정치/협조외교의 문제와 이에 대한 반발

- : 군부와 국가주의 단체들의 「워싱턴 체제」 인식

- 영국, 미국이 연합하여 일본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시도

- 영미와의 우호관계를 주장하는 정부, 재계, 일부 의원들은 위선적이라 주장

- : 나름의 근거

- 국제평화로 무역이 증가, 재계가 돈을 벌어도 도시 서민, 농민의 삶은 개선X

- 빈농 출신 청년들의 최고의 직장인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

- ex. 군축에 따른 취직난과 해고, 20년간의 평화

- : 군대와 빈민들은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평화주의 · 국제협조주의에 불만

- 국가사회주의에 경도

- 1930년대 기성사회 전복을 노리는 급진파 군인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

- : 정당정치는 1924~1932년, 약 8년간 지속

- 남성만의 보통선거제 실시(1925), 양대정당제 실현

2. 다이쇼 시대(1912~1926): 선출권력과 非선출권력 사이의 대립과 타협

- 정당정치/협조외교의 문제와 이에 대한 반발 (계속)
 - : (남성)보통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수의 급증
 - 막대한 선거자금의 필요해짐
 - 재계와의 필연적 유착(자금줄)과 부패사건 빈발
 - 「정당정치=금권정치」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
 - 非선출 엘리트층의 적폐를 갈아엎어 줄 것이라 보고 정당세력을 지지했던 지식인 · 국민들의 실망
 - 정당정치의 위기
 - : 1930년대에 도래한 정당정치의 위기적 상황
 - 관료 · 군부가 대외팽창 · 정치혁신을 주장하는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연대
 - 「부패」한 정당세력을 공격
 - 국민들은 이를 방관&무시

4. 과제

Q. 1920년대 일본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관하여

: 아마도 이제까지 강의에서 다룬 두 차례의 침략전쟁(청일 · 러일전쟁)과, 다음 강의에서 다룰 아시아 · 태평양전쟁을 연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, 우리가 근대 일본에 대해 갖는 인상은 다분히 호전적 · 침략적인 것이다. 이 인상이 어디까지 정확한 것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, 본 강의자는 그래도 1910~20년대에 일본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고 본다. 다만 그 선택지가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쁜 것이 아니라, 둘 다 보통 일본인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못했을 따름이다.

: 본 강의에서 언급했듯이, 한 선택지는 당시 보수파와 재계가 선호하던 국제 평화주의다. 그들에게는 전쟁보다는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훨씬 중요했다. 문제는 경제발전의 산물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실에 그들이 무심했다는 점이다. 또 하나의 선택지는 극좌 · 극우, 그리고 이후에는 일반 서민들까지 지지하게 되는 대외침략과 일본국내의 근본적인 정치/경제개혁(=국가사회주의+통제경제)이다. 이들은 이런 개혁이 고질적인 경제불평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 보았고, 따라서 이런 자신들의 계획을 외부로도 확장해야 하는데, 영국과 미국이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.

: 두 선택지 모두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(사실 현실에서는 편한 선택, 즉 하나가 완전히 좋고 하나가 완전히 나쁜 선택지라서 선택이 쉬운 경우는 거의 없다), 여러분들이 당시 일본인의 입장이라면 이 중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겠는가?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? 항상 그랬듯이 A4 1면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.